

반갑다, 야구야! 13일 개막 시범경기의 모든 것

‘반갑다, 야구야!’ 겨우내 야구 가뭄에 목말랐던 팬들에게 녹색 다이아몬드가 문을 활짝 연다.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가 13일 개막한다. 한달 넘게 스프링캠프 일정을 소화한 KBO리그 구단들은 8일까지 공식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친 뒤 이후 속속 귀국한다. 올 시즌 KBO 리그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파견을 위해 개막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그 영향으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기간도 짧아졌다. 그만큼 즉시전력과 숨은 원석을 찾기 위한 각 팀 감독의 눈이 빛났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팀의 스프링캠프 성과, 시범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새 얼굴, 그리고 역대 시범경기를 빛낸 볼 야구 스타들을 만나본다.



2018시즌 KBO리그에선 특급유망주로 꼽히는 ‘베이징 키즈’ 1세대가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 대표로 이름을 날린 삼성 양창섭(왼쪽)은 오기나와 스프링캠프지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인 두산 광빈(가운데)도 개막전 1군 엔트리에 이름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슈퍼투키 kt 강백호(오른쪽)는 LA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초대형 홈런을 터트리며 주목을 받았다. 스포츠동아DB·사진 제공 | 두산 베어스·kt 위즈

제2의 이정후는 ‘나야 나’

시범경기 슈퍼투키 계보 이어질까

kt 강백호, 평가전 초대형 홈런 주목
두산 광빈, 개막전 엔트리 가능성 업
삼성 양창섭, 완성형 특급 신인 기대

역대 시범경기의 사나이는?

〈2013년〉

‘줬다 하면 홈런’ 박병호

‘던졌다 하면 K’ 보우덴

〈2016년〉

KBO리그 시범경기는 정규시즌만큼이나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프링캠프 훈련의 결과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인데다, 엔트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출전할 수 있어 육성선수들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을 즐겁게 할 ‘깜짝 스타’의 등장은 덩이다.

시범경기는 첫 발을 떼는 무대이지만, 지나간 한 시즌의 성패 여부와는 연관이 떨어진다. 선수들 역시 따스한 봄기운을 빌려 ‘반짝’인 경우가 많다. 태평양 김홍기는 1992년 시범경기에서 홈런포 5개를 쏘아 올렸지만, 이후 2년 동안 3개의 홈런만 기록하고 은퇴했다. 2004년 포수에서 투수로 변신했던 KIA 임준혁은 6경기 연속 무실점을 포함해 7경기에서 2승 3세이브 방어율 2.45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개막 후 3경기(3.1이닝) 등판 후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반대로 2013년 넥센 박병호는 시범경기에서 패턴 4개의 안타를 모두 홈런으로 장식했는데, 정규시즌에서도 37개 홈런을 터트리며 홈런왕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2015년까지 이어간 홈런왕 4연패의 발판이 됐다. 2015시즌 탈삼진왕 차우찬(LG)과 2016년 삼진왕 마이클 보우덴(두산)도 개막 전 시범경기에서 삼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7년도 비슷했다. 신인이었던 넥센 이정후는 시범경기 12경기에 나서 33타수 15안타 타율 0.455를 기록했는데, 정규시즌에서도 552타수 179안타 2홈런 타율 0.324로 선전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NC 재비어 스크릭스는 시범경기서 타율 0.219(32타수 7안타), 1홈런, 5타점에 머물렀지만, 정규 시즌에서 3할 타율(437타수 131안타)에 35홈런 111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 했다.

특히 13일 개막하는 시범경기에선 국내로 돌아온 메이저리거 박병호, 김현수(LG), 황재균(kt)과 부상에서 복귀한 김광현(SK), 새내기 강백호(kt) 등이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대영 기자

아홉 루키 이정후(넥센)였다.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1차 지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다. 그러나 이정후는 시범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이 주인공인 신문기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나갔다.

지난해 이정후는 시범경기 12게임에서 33타수 15안타 타율 0.455의 맹타를 휘둘렀다. 안타 중 2루타가 3개, 3루타가 1개 있었다. 몸쪽, 바깥쪽 약점 없는 부드러운 스윙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타구를 만들어 냈다. 2009년 안치홍(KIA)이후 눈에 띄는 10대 타자가 없었던 KB O리그에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답게 강한 돌풍을 일으켰고 시즌 내내 맹활약하며 결국 신인왕 타이틀도 품었다.

2018시즌 KBO리그는 본격적으로 프로에

등장한 ‘베이징 키즈’ 1세대의 데뷔를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슈퍼투키 후보는 kt 강백호다.

고교시절 포수와 투수에서 모두 특급으로 꼽혔던 강백호는 타격에 집중하기 위해 외야수에 자리를 잡았다. 시속 150km의 묵직한 공을 가져 투수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kt 김진욱 감독은 데뷔 첫 시즌 타격에만 집중토록 했다. 강백호는 미국 LA에서 열린 NC와 평가전에서 비거리 130m 초대형 홈런을 날리는 장타력을 뽐내며 눈길을 끌었다.

두산 우완 투수 광빈도 개막전부터 1군 엔트리에 뽑힐 가능성이 높다.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일본 1군 타자들을 상대로 자신감 있는 투구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시속 148km의 빠른 공에 제구도 수준급이다. 두산 김태

형 감독은 “자신 있는 투구가 마음에 든다. 지금 모습이라면 1군에 당연히 넣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 양창섭도 스프링캠프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키즈 특급유망주 투수들이 쏟아져 나온 동급생 중에서도 고교 최강 덕수고 에이스이자 청소년대표로 이름을 날렸다. 시속 150km 이상 공을 가진 다른 투수에 가려 1차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완성도에서는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가 따른다.

롯데는 1차 지명에서 선택한 경남고 출신 한동화가 스프링캠프에서 기대 이상 가능성을 보여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루는 포수에 이어 팀에 가장 고민거리였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 높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KIA·두산·SK ‘3강’…LG·한화·삼성·kt ‘4약’

SK “최소 3위”부터 “우승도 가능” 호평 일색
롯데, 윤성빈 기대감…한화·삼성은 외인 약점

해설위원들이 본 스프링캠프 판세

일본 오키나와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걸쳐 날씨가 좋지 못한 때가 대부분이었다. 8일 각 팀들이 짜놓은 평가전도 비 탓에 모조리 취소됐다. 이 탓에 선수 체크를 못하는 감독, 큰 비용을 들여 캠프를 구성한 프런트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아직 오키나와를 능가할 전훈지가 없다”고 인정한다.

캠프지로서 오키나와의 최대 미덕은 접근성과 더불어 국내팀들이 밀집한다는 점이다. 현재 KIA와 롯데, SK, LG, 한화, 삼성 등

6개 팀이 오키나와에 모였다. 훈련장 시설이 없거나 열악해도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각 팀들의 전력비교가 수월하다. SBS스포츠의 이순철, 안경현, 이종열, 최원호 해설위원과 MBC스포츠플러스의 차명석, 박재홍 위원 등이 이 기간 오키나와를 방문해 전력을 탐색했다. 이들은 각 팀의 신인과 가세전력, 외국인선수를 유심히 지켜봤다. 각 팀 감독과 수뇌부를 만났고, 선수단 분위기를 살폈다.

해설위원의 신분인지라 자신의 평가가 공

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심했다. 다만 의견을 종합 청취하면, 큰 판세의 흐름은 포착할 수 있다.

‘오키나와리그’에서 가장 돋보인 팀은 SK였다. “최소 3위”에서 “우승 가능”까지 호의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김광현의 재활 성공을 확인했고, 산체스는 외국인투수 중 구위로만 따지면 넘버원이라는 평가다. 2017시즌 234홈런을 쳐낸 타선이 건재한 상황에서 켈리~김광현~산체스~박종훈~문승원의 선발진이 강력해졌다.

롯데도 외국인투수 듀브르트와 윤성빈의

선발진 가세로 3강(KIA, 두산, SK)을 위협할 전력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순철 위원은 “윤성빈은 한국의 오타니가 될만한 재목”이라고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LG와 한화, 삼성은 kt와 더불어 4약으로 분류된다.

LG에 관해 익명의 해설위원은 “약하다. 외국인선수까지 돋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외국인타자 호인, 삼성은 외국인투수 아델만이 기대치를 밑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오키나와(일본)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시범경기는 오후 1시부터…평일 무료 입장 혜택도

아시안게임 여파 총 40경기로 축소
구단별 입장료 정책 미리 확인 필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가 13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각 팀 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8경기를 치르는 시범경기는 사직(LG-롯데), 광주(두산-KIA), 수원(삼성-kt), 대전(넥센-한화), 마산(SK-NC) 경기를 시작으로 21일까지 9일간 총 40경기가 펼쳐진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정규시즌 개막이 이달 24일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

겨지면서 각 팀당 치르는 시범경기의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

시범경기는 육성선수를 포함해 엔트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장이 가능하다. 외국인선수도 한 경기에 3명 모두 출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당 평균 43.5명의 선수가 시범경기 그라운드에 나섰다. 시범경기는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각 구단들이 스프링캠프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팀 전력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모든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15일 넥센-KIA(오후 5시), 18일 두산-LG(오후 2시)의 경기만 예외다.

2018 KBO리그 시범경기 일정 / 경기 개시 시간: 13:00										
월	일	요일	장소	고척	문학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사직
3	13	화				삼성-kt	넥센-한화		두산-KIA	LG-롯데
	14	수				삼성-kt	넥센-한화		두산-KIA	LG-롯데
	15	목					kt-한화	SK-삼성	넥센-KIA (17:00)	두산-롯데
	16	금					kt-한화	SK-삼성	넥센-KIA	두산-롯데
	17	토	LG-두산			넥센-SK	롯데-kt	NC-한화	KIA-삼성	
	18	일	두산-LG (14:00)			넥센-SK	롯데-kt	NC-한화	KIA-삼성	
	19	월								
	20	화	한화-두산	LG-넥센	kt-SK				NC-삼성	KIA-롯데
	21	수	한화-두산	LG-넥센	kt-SK				NC-삼성	KIA-롯데

각 구단별 시범경기 입장료 정책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SK의 경우 평일 경기는 별도의 티켓 발급 없이 무료로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주말에

는 지정석 5000원, 일반석은 성인 5000원, 청소년·초등학생은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